

첩 소재 노래에 나타난 여성 의식

-〈큰어머니〉* 노래를 중심으로 -

이정아*

— <차 례> —

1. 첩 소재 노래에 주목하는 이유
2. 노래에 나타난 처의 행동과 그 심적 변화
3. 노래에 나타난 첩 형상의 의미
4. 갈등과 타협, 그 경계를 서성이며 말하다

<국문초록>

이 논문의 목적은 평민 여성들이 부른 대표적인 첩 소재 노래인 <큰어머니> 노래에 나타나는 처의 행동 및 심적 변화와 첩의 형상을 통해 전달되고 있는 여성 의식을 설명하기 위함이다. <큰어머니> 노래는 다양하고 섬세한 선학들의 논의를 통해 여성의 주체의식을 드러내는 노래로 알려진 바 있다. 본고가 주목하는 것은 노래에 나타나는 처의 행동 및 심적 변화 과정이며 이 과정에서 포착되는 여성의 식의 특징과 이를 통해 제기하고 있는 강력한 문제제기이다.

<큰어머니> 노래에서 처의 행동과 심적 변화는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남편을 기다리다 → 기다림 끝에 분노하다, 첩을 찾아가다 → 첩을 보고 마음이 변하다, 집으로 돌아오다 → 탄식하다, 자결하다, 첩 죽은 소식을 듣다. 이러한 세 가지 서

* <큰어머니>라는 명칭은 <첩집방문> 유형을 지칭한다. 이 유형을 <큰어머니>라고 칭한 이유는 채록 당시 제보자들이 <큰어머니>노래라고 명명한 데 있기도 하고 큰어머니(본처)가 부른 노래라는 점을 효과적으로 전달한다고 보이기 때문이다. 길태숙은 이 <큰어머니> 노래가 두 가지 종류로 불렸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본고는 그 가운데 <첩집방문> 유형에 해당하는 노래만을 <큰어머니> 노래라 칭하기로 하고 다른 노래는 <후실장가>라고 했다. 길태숙, 『민요에 나타난 여성적 말하기로서의 죽음』, 『여성문학연구』 9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03, 188-210면.

** 세종대학교 교양학부

사적 진행을 통해 처의 변화를 알 수가 있는데 먼저 길고 긴 기다림이 가져다준 상실감으로 인해 촉발된 분노는 첩의 집을 찾아가는 행동으로 이어진다. 처의 첩 집을 찾아가는 행동은 다시 첩을 대면하면서 그럴만하다는 심적 변화로 변하게 된다. 이후 처는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탄식하거나 그리워하거나 자결하거나 첩의 죽음을 상상하는 등의 다양한 결말을 보이며 여전히 유보적 태도와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노래에 등장하는 첩 역시 실제 가지고 있는 사회적 위상과는 달리 여유롭고 풍요로운 모습으로 등장하여 극도의 분노감으로 찾아온 큰어머니를 극진히 대접하고 환대한다. 이러한 첩의 형상은 첩을 바라보는 처의 이중적 시각을 반영한다. 첩은 자신에게 극진한 대접을 해야 하는 존재라는 사회적 위상에 대한 인식 그리고 자신의 초라한 행색과 대비되는 첩은 남성적 욕망에 포섭된 존재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의식이 포착되기 때문이다. 또한 노래에 나타나는 첩의 화려한 세간은 처의 억울한 심정을 대변하는 역설적인 문학적 수사 장치라고 볼 수 있다.

<큰어머니> 노래에는 남성적 횡포가 정당화되는 현실에서 여성이 어떻게 적응하여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과 갈등이 나타나고 있다. 이 갈등의 양상은 끝까지 그 경계에서 유보적 태도를 견지하게 하며 다양한 결말을 말하게 만듦다. 갈등과 타협의 경계를 서성이는 경계에 선 의식을 통해 여성이 강력하게 전달하고자 했던 것은 바로 주체적 자아로서의 삶이었고 동시에 그가 살아야 했던 현실적 삶에 대한 심각한 문제제기였다.

주제어 처, 첩, 갈등, 타협, 죽음, 탄식, 분노, 여성적 현실, 주체적 자의식, 여성적 말하기, 남편, <큰어머니>, <진주낭군>, <후실장가>, 타자적 욕망, 여성 의식, 경계, 유보적 태도

1. 첩 소재 노래에 주목하는 이유

최근 전통시대 여성의 법적 지위와 사회적 위상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면서 첩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¹⁾ 첩의 사회적 가족 내

위상을 살펴봄으로써 첩이 남성의 욕구를 정당화시키는 존재였다는 논의, 처와 구별되는 위치에 존재하게 하면서 남성 중심의 가족제도에서 조강지처의 위상을 극대화하여 이를 전략적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는 논의 등은 주로 지배층 시각에서 바라본 첩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평민 여성이 부른 노래에도 ‘첩’을 소재로 한 노래가 있다.²⁾ 가족 내 확고한 위계질서를 통해 첩을 관리했던 양반 여성과는 달리 평민 여성에게 첩은 위협적인 존재였다.³⁾ 양반 여성들이 강력한 가족제의 위계질서를 통해 본처의 입지를 확보하면서 첩의 자식까지도 보살피는 집안의 어머니로서의 위상을 확보했다면 평민 여성의 경우는 그와 같은 위상이 분명하게 포착되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평민 여성이 부른 첩에 대한 노래에는 첩으로 인한 처의 불안한 감정이라든가 격렬한 정서적 반응, 첩을 찾아가는 적극적인 행동 등이 직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처의 반

-
- 1) 정지영, 『조선후기 첩과 가족 질서- 가부장제와 여성의 위계』, 『사회와 역사』 65호, 한국사회사학회, 2004, 6-37면; 조은, 조성윤, 『한말 서울지역 첩의 존재양식- 한성부 호적을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 65호, 한국사회사학회, 2004, 74-100면; 이이효제, 『조선조 사회와 가족』, 한울아카데미, 2003, 106-109면; 박무영, 『남편의 인침과 아내의 적국 - 『한씨규훈』과 『자경』편의 첩 다루기가 의미하는 것』, 『문헌과 해석』 18호, 태학사, 2002; 황수연, 『조선후기 첩과 아내: 은폐와 갈등과 전략적 화해』,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2집, 한국고전여성학회, 2006, 349-380면.
 - 2) 강진옥은 이를 애정갈등 노래류로 분류하면서 <첩집방문>, <후실장가>, <진주낭군>, <서답노래>라는 노래를 다루었다. 강진옥, 『여성 서사민요에 나타난 관계양상과 향유층의 의식』, 『한국고전여성작가연구』, 태학사, 2000, 478-489면. 서영숙은 이를 ‘본처- 첩 관계 서사민요’라 하여 그 하위 유형으로 설정하여 정리하고 있다. 서영숙, 『한국 서사민요의 날실과 씨실』, 역락, 2009, 371-394면. 길태숙은 첩에 대한 처의 노래라고 정리하여 다룬 바 있다. 길태숙, 『민요에 나타난 첩의 위상』, 『여성문학연구』 13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05, 7-29.
 - 3) 조선 후기 경제적 여유가 생긴 민중 남성들은 지배집단의 축첩을 모방하였다. 민중은 지배집단과 달리 첩으로 인한 신분 제약과 같은 사회적 불이익으로부터 자유로웠다고 한다. 임철호, 『민요에 설정된 처첩간의 갈등과 반응』, 국어문학39집, 국어문학회, 2004, 293-325면.

응과 행동은 농촌 가면극이나 도시 가면극이 표현하는 처첩간의 갈등(할미과장)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첩을 소재로 한 노래가 표현하는 생생한 감정 표현이나 대응 방식 등은 이 문제의 당사자인 여성의 시각을 그대로 담고 있다는 점에서 각별하다.

지배사회에서 남성적 욕망을 합리화하는 존재로 등장한 첩은 그 욕망이 사라질 때는 언제든지 버려질 수 있었다. 그런 측면에서 첩은 처보다 그 입지가 불안정했다. 그러나 평민 여성이 부른 첩에 대한 노래에는 이러한 첩의 현실적 입지외는 상관없이 언제나 불안한 처의 감정과 위상이 전면에서 등장하고 있다.⁴⁾

강진옥은 첩과 관련된 애정 갈등의 노래에서 여성 인물들은 극단적인 대응을 통해 현실을 강렬히 부정하고 있다고 하면서 자살이라든가 파괴적 분노를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식의 극단적 파국을 통해 이러한 양상을 드러내고 있다고 하였다.⁵⁾ 이와는 조금 다른 시각에서 길태숙은 처가 부른 첩의 노래는 소극적이고 비판적으로 첩의 문제를 여성과 여성의 대립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으며 이러한 태도가 남성 중심의 질서를 강화하는 기능을 담당했다고 보았다.⁶⁾ 그러나 서영숙은 첩과 관련된 노

4) 서영숙의 『시집살이노래 연구』에 수록된 자료 가운데 발견되는 재산권과 관련된 처의 반응은 이러한 점을 잘 보여준다. “에라요년 행실존년 하늘같은 가장뻗겨 원통한디 세간조차 너를주랴” 첩1, 새터 28 <첩집방문노래>, “하늘같은 가장주기도 미이한데 세간전답을 반분하자나 선영조차 반분하자나” 첩2, 새터 51, <첩집방문노래>, “큰어머니 큰어머니 정실로 그러글랑 세간이나 반분해주제 에라 요년 그는못하겠다” 첩 4, <첩집방문노래> 등의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서영숙, 『시집살이노래 연구』, 박이정, 264-274면.

5) 강진옥, 위의 글.

6) 길태숙은 첩과 관련된 노래는 ‘본처’라는 향유층을 중심으로 전승되었으며 그래서 노래는 철저히 처의 시각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한다. 그래서 첩의 입장을 대변한 노래는 향유층을 형성할 수 없을 만큼 사적이고 개별적으로 불려 졌으며 현실에서는 향유층을 형성할 수 없을 만큼 불안정한 입장이었다고 말한다. 길태숙, 『민요에

래에는 현실적인 의식과 함께 가부장적 질서에 대한 적극적인 저항의지가 나타난다고 하였다.⁷⁾ 처의 첩에 대한 반응이나 대응은 첩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남편, 시어머니를 포함한 가족 제도 자체에 대한 저항으로도 나타나는데 <진주낭군> 노래 속에 등장하는 며느리(처)의 자발적인 죽음은 남성적 욕망을 충족시키는 기생첩을 용인하는 가족 제도에 대한 적극적 저항이라고도 볼 수 있다.⁸⁾

실제 첩을 소재로 한 노래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선행연구가 지적한 논의로만 설명될 수 없는 복잡하고 미묘한 양상이 행간을 통해 포착된다. 남성 중심 사회에서 타자로 존재했던 같은 여성 입장에서 처와 첩이 서로 타협할 수 있는 감정적 이해와 소통의 가능성이 엿보이기 때문이다. 노래 전면에 나타나는 큰어머니로서의 위상에 대한 확고한 자존감과 함께 행간에는 첩을 끌어안아야 한다는 고민의 흔적이 나타나고 있다. <큰어머니> 노래에서 처가 보이는 심리적 변화 즉 첩을 미주하면서 일게 되는 심적 변화와 이후 이어지는 자결, 탄식 등을 이야기하는 각각의 결말들은 바로 그런 갈등의 흔적이라 할 수 있다.

<큰어머니> 노래에서 주목하여 보아야 할 부분은 노래의 틈새로 언뜻 언뜻 엿보이는 갈등적 상황에 대한 처의 고민 즉 저항과 수용의 경계를 서성였던 여성적 자의식이다. 이러한 양상은 첩의 반응을 통해서도 유추할 수 있다. 극도의 분노와 상실감으로 찾아온 처를 첩은 큰어머니라며 환대하며 적극적으로 맞이한다. 화가 나서 당장이라도 첩을 해할 것 같은 기세로 찾아온 처를 맞이하는 첩의 태도는 여유롭기까지 하다. 첩은 남성

나타난 첩의 위상, 『여성문학연구』 13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05, 7-29면.

7) 서영숙, 『서사민요의 씨실과 날실』, 도서출판 역락, 2009, 371-394면.

8) 강진옥, 『서사민요에 나타나는 여성인물의 현실대응양상과 그 의미』, 『구비문학과 여성』, 한국구비문학회편, 박이정, 91-122면.

중심의 가족제가 만들어낸 남성 욕망의 자리에 포진한다. 성적 욕망을 포장한 대를 잇기 위한 도구, 노동력 확보를 위한 도구로 첩은 정당화되지만 남편의 애정이 사라지는 순간 이 모든 명분은 물거품처럼 사라지게 된다. 이러한 욕망의 구조로 만들어진 첩의 입지를 생각해 볼 때 첩의 위상은 불안하기만 하다.

그런데 첩 소재 노래 속의 첩은 그와는 다른 양상으로 나타난다. 불안하다기보다는 처보다 훨씬 여유롭고 안정적인 태도로 처를 응대하고 맞이한다. 더 나아가 큰어머니로서 처의 존재를 적극 인정하고 그를 맞이하고 대접하는 것으로 그 위상을 수용한다. 이러한 첩의 환대는 노래를 향유한 여성의식을 말해 준다. 첩은 극진하게 처를 환대해야 하며 처는 그러한 대접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향유층 의식을 대변해 준다. 그러나 노래 속 큰어머니는 이렇게 지극히 마땅하게 받아야 할 첩의 환대와 요란스런 대접에 여전히 유포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첩의 환대를 자기의 몫이 아니라고 극구 사양하고 있는 노래 속 정황이 그러하다.

바로 이 지점에서 경계에 선 처의 의식을 포착할 수 있다. 첩이 처를 큰어머니로 환대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지만 처는 여전히 이러한 대접을 받아들여야 할지 갈등하며 머뭇거리고 있다. 고운 첩을 바라보는 처의 시선에는 ‘내 눈에도 저런데 남편 눈에는 오죽할까’라는 이해와 수궁의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그러나 처는 술 한 잔으로 마음을 풀고 가리는 첩의 적극적인 권유에도 마음을 열지 않는다. 집으로 돌아서는 처는 탄식, 자결, 첩의 죽음을 기뻐하는 등의 다양한 모습으로 재현된다. 이러한 양상들은 여전히 첩에 대해 유포적인 처의 태도 즉 갈등과 타협의 경계에서 서성이는 여성의식을 반증하고 있다.

이 논문은 바로 이러한 노래 속 처의 의식을 쫓아 나가는 과정을 통해 남성 욕망이 만들어낸 ‘첩’ 문제에 대해 향유층 평민 여성들이 어떤 태도

와 반응을 보였는가를 설명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노래에 나타나는 처의 행동과 심적 변화, 첩의 형상에 대한 말하기를 통해 노정되고 있는 갈등과 타협의 경계를 서성이는 여성의식의 특징을 입증하기 위함이다. <큰 어머니> 노래에는 절박한 여성적 상황을 드러내기 위한 전략적 말하기의 패턴들이 잘 나타나고 있다. 정서적 자아와 사회적 자아 간의 충돌이 만 들어내는 균열 역시 그러한 말하기의 중요한 특징이며 이러한 양상은 단 일하지 않은 여성 정체성의 현주소를 효과적으로 나타내 주고 있다.⁹⁾ 이렇게 노래 속 재현되는 여성의 목소리를 탐색하는 작업을 통해 남성 중심 가족사회에서 첩과 공존하며 살아야 했던 여성이 남편을 공유하는 또 다른 여성(첩)을 어떻게 인식하고 수용¹⁰⁾하며 살아야 할지 심각하게 고민하고 갈등했던 흔적 혹은 정황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¹¹⁾

2. 노래에 나타난 처의 행동과 그 심적 변화

첩을 소재로 한 노래의 대표적 자료는 <큰어머니>, <진주낭군>, <후실장가> 등이다. 강진옥은 이러한 노래들을 ‘애정 갈등 노래류’라고 분류

9) 이정아, 『시집살이 노래와 말하기의 욕망』, 해안, 2010.

10) 『책 한 권으로도 모자랄 여자이야기』에 수록된 전라도 선정마을에 사는 금산댁 할머니 이야기라든가 최근 sbs에서 방영한 <짝>2에서 처와 첩이 공존하며 살고 있는 가족 사례를 통해서도 이러한 양상은 찾아볼 수 있다. 물론 이러한 공존의 삶은 조선 후기 남성중심 가족계가 만들어 놓은 불가피한 선택으로 그들 삶의 굴레이자 명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 분명 그들은 처와 첩으로 한 가족이 되어 살고 있다.

11) 노래는 사실은 아니지만 노래 부르는 이들의 진솔한 감정과 숨겨진 욕망을 담고 있다. 그래서 규범에 의해 욕망을 통제할 수밖에 없었던 지배층 여성들에게 찾아볼 수 없는 생동감 넘치는 의식을 살펴볼 수 있다. 결코 받아들일 수 없고 받아들이기 싫었던 현실 앞에 여성들은 어떻게 반응했고 갈등했는지 살펴봄으로써 타자적 현실에서 주체적인 삶을 살고자 했던 강력한 여성 자의식도 발견하게 될 것이다.

하고 남편의 외도로 야기되는 상황을 본처의 입장이나 본처 시각에서 보여주는 <첩집방문>, <후실장가>, <남편의 외도와 아내의 자살> 등을 논의의 대상으로 삼았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노래인 <첩집방문>은 ‘남편이 등너머에 첩을 두고 밤낮없이 그곳에 간다’→‘본처가 칼을 품고 첩의 집을 찾아 간다’→‘첩이 본처를 극진하게 대접 한다’→‘첩의 고운 모습과 초라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된다’→‘첩을 인정하고 그냥 돌아온다 혹은 자살하거나 첩의 부고를 받는다’의 서사단락으로 나누어 살피고 있다. 그는 이 노래가 갈등 유발의 당사자인 남편을 배제하고 그로 인해 고통 받는 본처의 입장에서만 서술되는 특징을 보인다고 하면서 노래 결말의 다양한 양상에 주목하고 노래가 지니는 감정적 해소의 기능을 언급하였다.¹²⁾

길태숙은 첩이 등장하거나 첩이 소재가 되는 노래를 본처 입장에서 불린 노래(<첩노래>, <진주낭군>, <큰어머니 노래>, <시앗죽은 편지받은 노래>, <수저소리노래> 등)와 첩이 스스로의 위상을 드러내는 노래, 남편의 입장을 대변하는 노래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민요에 나타나는 첩의 이미지는 남성성 과시를 위한 사랑스런 도구, 아름다운 여성이지만 죽이고 싶도록 미운 가해자, 불안한 사랑에 의지한 또 하나의 피해자 등으로 세분화하여 첩의 위상을 의미화하였다.¹³⁾

서영숙은 ‘본처-첩 관계 서사민요’라 하여 이 유형의 노래를 분류하면서 그 하위 유형으로 ‘첩의 집에 갔다가 그냥 돌아오는 본처’, ‘첩의 집에 갔다가 돌아와 자살하는 본처’, ‘첩의 첩에 갔다가 돌아와 첩의 부고를 받는 본처’, ‘첩이 죽자 기뻐하는 본처’, ‘본처가 죽자 기뻐하는 첩’으로 세분

12) 강진욱, 앞의 글.

13) 길태숙, 『민요에 나타난 첩의 위상』, 『여성문학연구』 13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05, 7-29면.

화하였다.¹⁴⁾ 이러한 세분화된 하위 유형의 서사 구조를 근거로 처가 느끼는 현실 의식, 박탈감, 상실감, 자존의식을 설명하고 있다.¹⁵⁾ 서영숙은 길태숙이 첩 소재에 나타나는 여성의식이 다분히 소극적이고 비주체적이라고 보았던 것과는 달리 가부장제 질서 하에서 표명한 적극적인 자기표현의 방식과 생존의식이 담겨있다고 보았다.

본 논의는 처의 대응방식과 의식을 정교하게 다루고 있는 이들 선행연구의 결과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출발한다. 선행 연구자들이 언급한 처의 대응을 통해 드러나는 비판 의식, 현실 의식, 박탈감, 상실감, 자존의식에 대한 해석에 동의한다. 다만 본 연구가 주목하는 것은 첩을 바라보는 처의 시선과 태도가 노래를 진행해가는 과정 중에 점차 변해가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그러한 변화 이후에 이어지는 처의 행동이 각편마다 다르게 전개된다는 사실이다. 변화의 과정이 노래를 통해 그대로 노정되고 있다는 것은 노래를 통해 전달하려는 의미의 지향점이 변화의 과정에 있다는 점을 반증한다. 따라서 그 변화의 과정을 따라가면서 노래가 궁극적으로 전달하고자 했던 의미의 지향을 꼼꼼하게 따져보는 일은 노래에 담긴 의미와 그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 의식을 추출하기 위해 선결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한편 <큰어머니> 유형 노래에 등장하는 첩은 대부분 처를 큰어머니라 크게 환대하며 환심을 사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한다. 이러한 양상은 다른 장르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없다.¹⁶⁾ 극도의 분노감을 가지고 찾아온

14) 서영숙은 처첩 관계를 다룬 노래 47편을 대상으로 (서영숙 자료 10편, 조동일 자료 6편, 한국민요대전 자료 4편, 한국구비문학대계 27편)으로 노래의 구조적 특징을 통해 전통사회에서 야기된 처와 첩의 갈등 설명고 있다. 서영숙, 『한국 서사민요의 낱말과 씨실』, 역락, 2009, 371-394면.

15) 이러한 서사구조 결말에 따른 여성의식의 다양성에 대한 시각은 서영숙과 강진옥 모두 유사하다고 보이며 필자 역시 같은 입장이다.

본처를 맞이하는 첩의 여유로운 태도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 행주 치마를 두른 채 새벽바람에 첩 집을 찾아간 처의 행색이 첩의 고운 자태와 비교되는 양상은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마땅할까? 아름답고 친절한 첩이 누리고 있는 호사스런 살림들이 노래를 통해 상세하게 언급되는 것은 무엇을 전달하기 위함인가? 이러한 의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 역시 제시한 과제를 성취하기 위해 설명해야 할 문제이다.

앞으로의 논의를 위해 처와 첩의 관계를 다룬 노래를 포괄적으로 ‘첩 소재의 노래’라 칭하기로 하고 그 대표적 유형의 노래로 <큰어머니> 노래를 선택하기로 한다. <큰어머니> 노래에는 처를 맞이하는 첩의 행동 양상이 비교적 상세하게 상술되고 있고 그로 인한 처의 심적 변화, 이후 이어지는 행동 양상들이 그대로 노정되고 있기 때문이다.¹⁷⁾

논의의 대상으로 삼은 <큰어머니> 노래는 다음과 같은 서사적 사건으로 전개된다.

1. 처(큰어머니)는 밤낮없이 첩의 집에만 찾아가는 남편을 기다린다.
2. 처는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는 남편 때문에 분노한다.
3. 처는 칼을 품고 첩의 집을 찾아간다.
4. 칼을 품고 온 처를 첩은 큰어머니라 하며 맞으며 크게 환대한다.
5. 처는 내 눈에도 저러한데 남편이야 어땠겠냐며 생각한다.
6. 처는 집으로 다시 돌아온다.¹⁸⁾

16) 서사무가 <칠성본풀이>나 농촌 탈춤이나 도시 탈춤에 등장하는 처첩간의 갈등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17) 『한국구비문학대계』에 수록된 27편의 자료와 서영숙의 『시집살이 노래 연구』에서 수록하고 있는 10편의 자료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해 나가기로 한다. <진주낭군>, <후실장가>와 같이 첩(기생)으로 인한 처의 갈등을 다룬 노래 역시 논의를 위한 보조적 자료로 삼기로 한다.

7. 집으로 돌아와서는 탄식하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¹⁹⁾ 각편에 따라서 집에 돌아온 처가 첩의 부고를 받고 기뻐하기도 한다.

위에서 제시한 서사적 전개를 통해서 나타나는 처의 행동과 심적 변화는 다음과 같이 정리 할 수 있다.

- (1) 남편을 기다리다 → 기다림 끝에 분노하다
- (2) 첩을 찾아가다 → 첩을 보고 마음이 변하다
- (3) 집으로 돌아오다 → 탄식하다, 자결하다, 첩 죽은 소식을 듣다

2-1. 남편을 기다리다 → 기다림 끝에 분노하다

노래를 통해 나타나는 처의 모습은 조선시대의 가족제가 규정하고 있는 본처의 위상과는 전혀 다른 위치에 자리하고 있다. 노래 속 처는 심리적으로 상당히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 있다. 남편은 밤낮없이 첩의 집만 찾기 때문이다. 이러한 처의 내적 위기감과 애타는 심정은 아래 노랫말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임아임아 우런님아/우런님의 거동보소
 하늘걸은 갓을씨고/ 구름걸은 말을타고
 등너메다 첩을두고/ 밤으로는 자러가고/ 낮으로는 놀러간다
이레가주주 못살겠네/임없어 타는 간장/ 서러워도 못살겠네.. 중략..²⁰⁾

노래 속 화자는 남편은 ‘임’이라 부르고 있다. 임이라 부르고 있는 남편

18) 『한국구비문학대계』21편 자료 가운데 9편이 그냥 돌아가는 것으로 매듭이 지어진다.

19) 『한국구비문학대계』21편 자료 가운데 5편이 자결로서 끝이 난다.

20) 『한국구비문학대계』 7-5 340-343면

은 멋지고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하늘같은 갓을 쓰고 구름같은 말을 타고 첩을 향한다. 남편이 첩을 향하는 일은 일회적 사건이 아니라 지속적인 사건이다. 이 지속적인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화자는 애타게 남편을 기다렸다. 밤으로는 자러가고 낮으로는 놀러간다는 화자의 말 속에서는 이러한 오랜 기다림의 시간이 함축되어 있다. 그러나 여전히 남편은 처를 찾아오지 않는다. 결국 처는 '이래가주구 못살겠다'며 '서러워 못살겠다'며 움직이기 시작한다.

서두 부분을 살펴보자면 현재 처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남편이며 가장 참을 수 없는 것 남편의 부재이다. 남편이 오지 않는 처의 집과 첩의 집은 대조가 된다. 노래 속 처는 더 이상 이러한 상황을 참을 수가 없게 되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심정은 '타는 간장 서러워'로 압축된다. 처가 지금 참기 어려운 것은 자신의 존재를 잊고 있는 남편이다.

이렇게 첩을 소재로 한 노래에는 자신에게 무심한 남편 때문에 상처받는 여성들이 자주 등장한다. <진주낭군>에 등장하는 처 역시 자신의 존재에는 안중도 없는 남편의 무심함에 큰 상처를 받는다. 모처럼 만나게 된 남편은 데리고 온 기생첩과 잔을 주고받으며 희희낙락하고 있다. 자신의 존재에 무관심한 남편을 참아낼 수 없어 처는 결국 목을 매고 만다.

울도담도 없느냐 집에/시집살이 삼년만에
 시어머님 하시는말씀/애야아가 올라가
 진주낭군 가셨으니/진주낭군 빨래를 가라
 들도 좋고 물도 좋은데/검은빨래 검게씻고
 희연빨래 희게 씻고/오동동 빨래라다가
 칠거덕칠거덕 말굽소리/귀에쟁쟁 들리는데
 옆눈으로 흘겨보니/하늘같은 갓을쓰고
 구름같은 말을타고/집이라고 떡들어서니

애야아가 며늘아가/진주낭군 오셨으니
 사랑방에 내려가라/사랑방에 내려가니
오색가지 수를 놓고/아홉가지 안주놓고
기생첩을 옆에다끼고/권주가를 부르더라
이걸보고 화가나서/상포석자 목을매어
양젓물을 들이키고/대문밖에 들어서니²¹⁾

노래에서 나타나고 있듯이 오직 남편 보기를 바라면서 시집살이를 견딘 처는 남편을 보고자 빨래하러 간다. 남편을 보고자 빨래를 하러갔지만 정작 남편은 하늘같은 갓을 쓰고 구름 같은 말을 타고 무심하게 지나칠 뿐이다. 빨래하는 아내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고 그냥 지나고 있다. 다시 집으로 돌아온 처는 사랑방을 찾는다. 이미 자신에게 냉담했던 남편의 무심함에 상처를 받은 처는 사랑방에서 기생첩을 옆에 끼고 권주가를 부르는 남편의 모습을 보는 순간 더는 참을 수 없고 생각한다. 그리고는 목을 매고 양젓물을 들이킨다. 목을 매고 양젓물을 들이키는 행위는 이전 상황까지 침묵으로 일관했던 조용한 처의 모습이라고는 도저히 미끼지 않는다.²²⁾ 노래 전반부에서 묵묵히 시어머니의 권유를 따르던 그 며느리의 행동이라고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행동이다.

위 노랫말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남편을 향한 그리움으로 살아왔던 처가 자신 앞에서 다른 대상과 애정행각을 벌이는 남편에 대해 분노²³⁾함으로써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다. 처가 선택한 이 극단적인 선택은 남편의 무책임한 행태가 용인되는 가족제도에 대한 저항처럼 보인다.²⁴⁾ 도무지

21) 『한국구비문학대계』 7-17 688-689면.

22) 강진옥, 앞의 글.

23) 분노는 강력한 주체적 자의식을 반영하는 감정이라고 할 수 있다.

24) 이를 강진옥은 자기 부정을 통한 역설적인 자기인식이라고 한 바 있다.

자기 존재를 알아주지 않는 남편을 향해 치는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통해 자기 존재를 알리고 있다. 결국 남편의 입을 통해 터져 나오는 “첩의 정은 삼년이요, 본처정은 백년”이라는 절규를 듣고 싶었다. 이런 극단적 대응을 통해서라도 자존감을 회복코자 했던 극단적인 대응 방식은 향유층의 강력한 주체적 자의식을 반영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첩 소재 노래 가운데는 처가 분노하여 극단적인 자살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에게 직설적인 저주를 퍼붓는 양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첩을 들어서 후실장가를 가겠다는 남편에게 저주의 직격탄을 날리는 처의 모습이 발견되기 때문이다.

말아시오 말아시오/ 요번장개 말아시오
 뿔이기리버 갈라하요/ 하늘겘은 부모두고
 온달겘은 맥을두고/ 반달겘은 첩을두고
 앵두겘은 딸을두고/ 구실겘은 아들두고
 ... 중략 ...
 요번장개 말아시오/ 장개질이나 채리가주
 삼작겘에 나가거던/ 장때미니 빨리 주소
 한모랭이 돌거들랑/ 요시짐승 진동하소
 두모랭이 돌거들랑/ 간지짐승 진동하소
 어허불상 아부님요/ 잃었도다 재쟁이요
 어라이눔 물렀거라/ 산짐승이 어디란가
 시모랭이 돌거들랑/ 말다리나 부러지소
 행리청에 들거덜랑/ 사모관계 뿌사지고
 점슴상을 받거들랑/ 수저분이 뿌러지소
 지역상을 받거들랑/ 서이깨는 앓고 접고

강진욱, 앞의 글.

얹어개는 높고 접고/ 높거들랑 아무가고 영가시오²⁵⁾

처는 후실장가겠다는 남편에게 말한다. “뿔이기리버 갈라하요/하늘겘은 부모두고/온달겘은 댁을두고/반달같은 첩을두고” 남편은 이미 모든 것을 갖추고 있다. 그런데 다시 첩을 들이겠다고 한다. 참다못한 처는 장가 가려는 남편에게 저주를 한다. 죽음에 대한 저주는 아주 구체적이다. 이 저주를 통해 남편을 향한 극도의 분노감이 표출되고 있다. 분노는 처의 강력한 자의식을 반영한다. 처는 이미 모든 것을 소유하고도 또 첩을 들이겠다는 그 이기적 욕망에 강력하게 분노하고 있다.

살펴본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처의 반응이 매우 극단적이며 격렬하다는 사실이다. 요동하는 심리상태를 그대로 내 보이며 거침없이 욕설을 퍼붓기도 하고 극단적인 행동을 감행하고 있다. 이러한 거침없는 말과 행동은 이 노래를 향유하는 처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여성들에게 정서적 공감대와 카타르시스를 수행해 나갔을 것이다.²⁶⁾ 지금 여기 현실에서 묵묵히 일상을 유지하며 성실히 살고 있는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이기적이고 무심한 남편에 대한 분노, 나와 함께 있어야 할 남편이 나 아닌 누군가에게 온통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는 배신감과 상실감이 직설적이고 극단적인 처의 말과 행동을 통해 전달되고 있다.

이렇게 첩을 소재로 한 대부분의 노래에는 처의 극도로 예민한 심리적 반응이 가감 없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²⁷⁾ 처의 그 예민한 반응에는 첩을 욕망하는 것을 당연하게 수용해야 하는 현실에 대한 저항도 자리한다.

25) 『한국구비문학대계』 7-4 514-517면.

26) 강진옥, 서영숙, 길태숙 모두 같은 견해를 보인다.

27) 강진옥, 『여성 서사민요에 나타난 관계양상과 향유층의 의식』, 『한국고전여성학연구』, 태학사, 2000, 478-489면.

동시에 남편과 온전한 사랑을 나누고 싶다는 욕망이 좌절된 현실에 대한 분노와 절망의 감정도 공존하고 있다. 첩을 소재로 한 노래는 첩에 대한 적대감, 남편에 대한 분노, 시집살이에 대한 저항이라는 현실적인 대응과 함께 온전한 사랑을 받지 못하는 존재로서 겪어야 하는 내적 상실감과 좌절도 포착된다.

이렇게 복잡한 처의 심정은 <큰어머니> 노래를 통해 가장 잘 나타나고 있다. 첩 소재 노래 가운데 극도로 예민해진 처의 심정을 가장 극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도 <큰어머니> 노래이고 처의 심리적 변화 양상을 포착할 수 있는 것도 <큰어머니> 노래이다. 게다가 이러한 일련의 변화를 거치고 난 이후의 다양한 반응과 결말도 보여주고 있어 주목할 만한 노래라고 할 수 있다.

2-2. 첩을 찾아가다 → 첩을 보고 마음이 변하다

<큰어머니> 노래에 나타나는 처는 남편을 애타게 그리워하다 결국 분노하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처의 분노는 남편을 향하여 표출되지 않는다. 노랫말에 나타나는 대로 보자면 처는 남편을 앓아간 첩에 대해 분노하고 있다. 현실의 눈으로 엄격하게 따져 보자면 처가 느끼는 분노의 원천적인 책임은 남편에게 있다. 그러나 노래 속 처는 남편이 아니라 첩을 향해 분노하고 있다. 처는 그 분을 참아낼 수 없어 큰칼을 품고 첩 집을 향하고 있다.²⁸⁾

28) 남편에 대한 애타는 그리움이 첩에 대한 분노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이 노래 속 화자의 의식이 원초적 욕망(질투)에 근거하고 있다는 증거이자 동시에 남성적 이데올로기에 포섭된 타자적 정체성을 함의하고 있다는 점을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다.

행주치말랑 덜치입고/새복바람 찬바람에
 논뜰밭을 쫓아가니/이구같은 첩년보소
 꽃자리를 피털치며/여만지소 저만지소
 어라요년 물리쳐라/꽃자리가 내자리가
 끼적대기가 내자리지/은소루배는 담배담고
 뉘소루대는 불떠담고/화주설덜랑 뺨쳐놓고
 크다크다 큰어마님/담배한대나 잡으시오
 에라요년 물리쳐라/뉘소루배기가 내불이가
 속소루배가 내불이지/은소루배가 내담배가
 박쪼가리가 내담배지/갈래갈래 나는갈래
 우리집에 나는 갈래/크다크다 큰어마니
 이왕지사 오시건든/하룻밤만 유해가소 ...이하생략²⁹⁾

얼마나 긴박하고 급박한 상황인가. 행주치마를 그냥 두른 채 새벽바람을 가르며 논밭을 지난 한걸음에 첩의 집을 향하고 있는 첩의 모습이 생생하게 묘사되고 있다. 당장이라도 어떻게 해 볼 심산으로 찾은 첩의 집이기도 하다. 그런데 행주치마 걸치고 새벽 찬바람을 가르고 한걸음에 달려간 처는 첩 집을 들어서자 멈칫한다. “쫓아가니” 다음에 이어지는 “이구같은 첩년”에서 처의 분노는 순간 멈칫하면서 변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첩은 느닷없이 새벽에 들이닥친 처를 보자 “크다크다 큰어머니”를 연발하며 꽃자리를 내놓고 담배도 내놓는다.³⁰⁾ 이 장면에서 극도의 분노를

29) 『한국구비문학대계』 7-5 340-343면.

30) 여기서 주의해서 보아야 할 것은 이 노래가 누구의 시각에서 불리는가이다. “이구같은 첩년보소”라는 부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노래는 처의 시각에서 불리고 있다. 그런데 처의 시각에서 불리는 노래에 등장하는 첩의 태도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노래 속 첩의 행동은 실제의 행동이라기보다는 조강지처인 큰어머니 대접을 받고 싶은 처의 바람일 수도 있다.

품고 찾아간 처와 대조가 되는 첩의 태도는 참으로 인상적이다. 칼을 품고 찾아간 처를 첩은 갓은 아양과 환대로 응대한다.

이러한 첩의 여유로운 대응과 환대에 대해 큰어머니는 “꺼적대기가 내 자리다, 속수루배가 내불이고 박쫓가리가 내담배”라며 오히려 자조적 탄식을 할 뿐이다. 노래 초반의 극도의 분노감으로 기세당당하게 첩 집을 찾은 당당함은 사라져 버렸다. 요란스런 첩의 환대 앞에 처는 “에라요년 물리쳐라”며 애써 이를 외면할 뿐이다. 칼을 품고 찾아간 자의 대응이라고 하기엔 어딘가 석연치 못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 요란스러운 첩의 환대는 초라한 처의 행색과 대비되면서 더욱 난처해져 간다. 그러나 끝까지 당당함을 잃지 않으려는 듯 처는 “에라요년 물리쳐라”를 반복하며 큰소리치며 첩에게 의연함을 보이고자 한다. 그럴수록 첩은 “이왕지사 오시건든 하룻밤만 유해가소”라며 적극적으로 처를 붙잡는다. 첩의 집을 찾은 처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심적 변화를 겪게 된다. 남편을 독점하고 있는 첩을 응징하려고 온 처는 첩의 요란스런 환대에 낮이 나가 헛기침하며 “물리쳐라”를 연발하면서 의연함을 내보이고 있지만 초라한 자기 행색에 대한 자의식을 떨치지 못하게 되었으니 말이다.

지금까지 노래를 통해 나타난 정황을 정리해 보자면 본처는 사랑하는 남편을 첩에게 빼앗겼고 그 분함을 이기지 못해 남편이 밤낮으로 찾아가는 첩의 집을 찾았다. 그런데 그 첩은 큰어머니 오셨다면 갓은 아양을 부리며 야단스럽게 환대한다. 첩은 처에게 하룻밤 유해가라고까지 잡아끌며 권한다. 처는 의연한 듯 큰소리치며 이를 내치지만 내심 자신의 초라한 행색과 첩의 형상을 비교하기 시작한다. 결국 처는 첩의 환대를 마다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한다.

노래 속에 촉발되는 처의 행동은 내 것을 빼앗겼다는 상실감과 분노로 시작된다. 그런데 이러한 극도의 예민한 감정적 반응은 첩을 만나는 순간

달라진다. 이 변화는 첩의 요란스런 환대와 첩의 외적인 모양새로 인해 촉발되는 것처럼 보인다. 큰어머니라며 야단스럽게 환대하는 첩의 극진한 태도와 처(여자)가 보아도 그럴만하다 여겨지는 아름다운 모양새이다. 이러한 대면으로 처는 노래 초반에 보였던 상실감과 분노감을 잠시 잊어버리는 듯 보인다. 그러면서 행주치마를 그대로 둘러차고 달려온 자신의 현재 모습을 자각하게 된다.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첩이다. 그런데 그런 첩은 매우 아름다우며 친절하기까지 하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큰 칼을 품고 찾아올 만큼 미웠던 첩이 처에게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오는 순간이 노래를 통해 포착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전반부 격렬했던 말과 행동과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나타난다.

앉거라 그래보자/ 서거라 봉채보자
 눈썹자리 볼짝시면/ 눈매전은 시부실로 기린것네
 눈썹자리 먼실로 탕눈것네/ 처배귀가 두만남아
 정지구석 여런할사/ 임모습이 두만 남아
 방구석이 여런할사/ 여자눈이 조만할사
 군자눈에 여런할사.. 이하 생략 31)

그반절바라 내가왔다/ 임볼라고 내가왔다
 눈꾸석이 조령거등/ 방꾸석이나 이런하나
 잇바디가 조령거등/ 독바디가 이런할까
 입모십이 조령거등/ 빗모십이나 이런할까
 여자눈에 조령거등/ 남자눈에는 이런할까... 이하생략³²⁾

31) 『한국구비문학대계』 7-4, 405면.

32) 『한국구비문학대계』 7-8, 187면.

처의 심리적 변화는 여자 눈에도 저리 고운데 남자 눈에는 어떨까라는 응수로 이어진다. 애정을 다투는 경쟁적 관계에서 심리적으로 찾아드는 분노감과 불안감은 어찌할 수 없지만 동시에 여자인 내 눈에 보아도 그럴 만한 그녀 앞에선 처는 남편의 사랑을 독점한 그녀를 자신을 견주고 있다. 내 것을 빼앗아 간 존재에 대한 분노를 넘어서 빼앗아갈 만한 그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는 그와 나를 견주게 된다. 생활인으로 살아온 처와 달리 첩은 남편의 욕망을 만족시킬 매력으로 무장하고 있다. 극진한 대접과 야단스런 응대 그리고 이롭다움. 그가 보이는 매력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 나와는 다를 수밖에 없다. 애초부터 나와는 달리 남편 욕망에 맞춰져 만들어진 대상³³⁾이다.

이렇게 <큰어머니> 노래의 시작은 남편을 빼앗겼다는 상실감과 분노로 도저히 살수 없어서 큰 칼을 품고 첩의 집을 찾아가는 것으로 출발하지만 막상 첩을 만나면서 그 분노는 누그러지게 된다. 자신을 큰어머니로 환대하는 첩의 행동을 보며 오히려 ‘내 눈에 저런데 남편 눈에는 오죽하겠느냐’ 라는 태도로 첩을 바라보게 된다.

이러한 시선에서 단순하지 않은 여성의식이 발견된다. 이 단순하지 않은 의식의 기저에는 남성 욕망에 길들여진 여성의 타자적 욕망이 자리한다. 남성에게 사랑받을 만한 여성이라는 남성 중심 이데올로기에 포섭된 여성의 타자적 욕망이 그 분노의 감정을 희석시켜버리는 순간이다. 동시에 타자적 욕망에 충실한 존재로 살아가는 여인을 타자적 주체³⁴⁾의 시선

33) <진주낭군>이나 <후실장가>와 같은 노래 속에서 첩은 목소리 없는 존재로 등장하기도 한다. <진주낭군>에 등장하는 기생첩은 단지 남편과 잔을 주거나 받거나 하는 소품처럼 등장한다. 노래의 어디에서도 첩의 목소리는 들을 수 없다. <후실장가>에 나타는 첩 역시 남편의 욕망을 충족하기 위한 존재로 등장할 뿐이다. 두 유형의 노래에 등장하는 첩은 남편의 욕망을 위해 존재하는 사물 혹은 욕망의 소모품처럼 보인다.

34) 남성적 자아를 내면화한 타자적 주체로서의 정체감.

으로 바라보게 된다. 이 지점에 이르러 처는 비로소 분노의 대상은 첩이 아니라 바로 남편이라는 인식에 도달했는지 모른다. 자신에게 분노를 안겨다 준 것도 자신에게 억울함을 만들어 준 것도 모두 남편의 이기심을 용인하는 세계가 만들어준 횡포라는 사실에까지 그 인식이 도달했는지도 모른다. 이러한 인식의 실체는 노래를 통해 뚜렷하게 드러나지는 않는다. 다만 행간을 통해 포착되는 변화의 양상을 통해 그 인식의 변화를 포착하고 추론해낼 수 있을 뿐이다.

2-3. 집으로 돌아오다 → 탄식하다, 자결하다, 첩 죽은 소식을 듣다

처의 심적 변화는 그러나 첩을 포용하거나 끌어안는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처는 첩의 적극적인 화해의 몸짓을 뿌리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간다. 많이 잠수시고 먹은 마음 풀어 놓고 가라는 적극적인 첩의 권유에도 처는 마음을 열지 않는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온다. 돌아온 집은 그야말로 탄식의 공간이다.

꽃방석을 옆에놓고/ 여앉이소 여앉이소
 외씨겔은 젓이밥에/ 앵두같은 팔을놓고
 한푼두푼 돌나물에/ 자반자반 집어놓고
 덜컹받아 나물을/ 자반자반 집어놓고
 제발적선 비름나물/ 자반자반 집어놓고
 크다크다 큰어머니/ 많이많이 잠수시고
떡던맘을 한뉘맘을/ 이자리에 풀오놓고
모든 것을 직으러갔든길/ 집에들어 와서보니
어린아이 젓달라고 울고 있고/ 서애나는 어린애기
밥달라고 울고있고/ 보름새 명주는 밍에걸다 뉘는 것이³⁵⁾

먹은 마음 풀어놓고 가리는 첩의 권유를 뿌리치고 집에 오니 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젓 달라고 울고 밥 달라고 우는 아이들 그리고 밤낮없이 짜내야하는 명주뿐이다. 첩의 집을 찾아갔지만 결국 처가 얻어낸 것은 없다. 집으로의 귀환 이후 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냉혹한 현실이다. 그리고 처는 그 현실을 다시 살아야만 한다.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화자는 그저 탄식할 뿐이다.

이렇게 냉혹한 현실을 그대로 재현해주는 결말과는 달리 집에 돌아온 이후에도 하염없이 남편을 기다리다가 그 그리움으로 결국 죽음에 이르는 처의 모습을 노래하기도 한다.

논돌밭을 뛰어와서/비렁박을 입을삼고
앉아스니 남이오나/누워스니 잼이오나
강생이가 콩콩짓어/임오는가내다보니
강생이도 날색이네/대문고리 달각거라
임오는가 내다보니/대문고리 날색이네
 가랑잎이 바삭거려/눈물흘려 갱이됐네
 기우한쌍 오리한쌍/쌍쌍이도 뜨디로미
 이기우야 이오리아/대동강도 있건만은
 대동강에 떠디로다/눈물강에 놀기좋아 떠디로네
부고왔네 부고왔네/둥너메로 부고왔네
놀로해서 죽었겠소/날로해서 죽었겠지
 받은 밥상 밀치놓고/버선발로 뛰어가서
한손으로 받은부고/두손으로 띠어보니
죽었다네 죽었다네/큰어무이 죽었다네³⁶⁾

35) 『한국구비문학대계』 7-18, 614-615면.

36) 『한국구비문학대계』 7-4, 403-407면.

앉아 있으면서도 누워 있으면서도 오지 않는 입을 기다리고 있는 화자는 개 짖는 소리, 대문 고리 달각거리는 소리, 가랑잎 바삭거리는 소리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렇게 마음을 줄이며 님이 오기를 기다리지만 결국 그 길고도 지루한 그리움 끝에 결국 처는 죽고 만다. 이러한 애처로운 처의 죽음은 “부고왔네 부고왔네” 화자 목소리가 교체되고 서술자 시각이 전환되는 대목이 갑자기 이어지면서 알 수 있다. 처의 부고를 받은 것은 다름 아닌 첩이다. 받은 밥상을 벌치고 버선발로 뛰어가 부고를 받은 첩은 “날로 해서 죽었겠지”, “큰어무이 죽었다네”라고 탄식하며 처의 죽음을 말하고 있다.³⁷⁾

한편 이와는 달리 첩의 부고를 받고 내심 기뻐하는 처의 모습이 포착되는 노래도 있다.

편지왔네 편지왔네/ 어디께서 편지 왔는가
 서울에서 편지왔네/ 앞문으로 받아달에
뒷문에서나 피어나 봉개/ 시앗죽은 편지로세
괴개에도 쓰던 뱀이/ 소금에도 담도 다다
 소상때나 갈랫더니/ 춤추니라고 내뭇갔네³⁸⁾

시앗 죽은 편지를 받아든 처의 심정은 ‘고기반찬에도 쓰기만 했던 밥이 소금에도 달기만 하다’는 것으로 압축된다. 춤을 추느라 소상에도 못 갔다는 솔직한 처의 심정이 가감 없이 노래를 통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처의 솔직하고 거침없는 말과 행동은 그럴만하다고 첩을 바라보았던 노래 중반부 시선과 충돌하는 모습이기도 하다. 그럴만하지만 그와는

37) 이 부분의 시각이 남편으로 전환되는 자료들도 여러 편 있다. 여기에서는 남편의 자탄과 후회가 이어진다.

38) 『한국민요대전 전라남도민요해설집』 75면.

공존하거나 연대하고 싶지 않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기도 하다.

상실감과 분노로 찾아간 첩의 집, 거기서 만난 아름답고 상냥한 첩, 첩의 만류를 뿌리치고 돌아서 집으로 돌아오고 마는 처, 돌아온 집에서 펼쳐진 현실을 그저 황망하게 바라보며 탄식하는 처,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는 남편을 하염없이 그리워하다 죽음에 이르는 처, 그의 사랑을 결코 포기할 수 없어 첩의 죽음을 상상하며 내심 기뻐하는 처, 이 모든 장면들은 처의 심리적 변화의 과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첩에 대한 분노, 남성 욕망에 의해 포섭된 여성 욕망, 자신과 같은 처지의 타자에 대한 연민 혹은 이해 그러나 도저히 포기할 수 없는 남편에 대한 사랑... 결코 단순하지 않는 욕망과 감정, 생각들이 노래를 통해 서로 얽히고설키면서 재현되고 있다. 이를 통해 갈등과 타협의 경계를 서성이던 여성의식을 가감 없이 보여주고 있다.

3. 노래에 나타난 첩 형상의 의미

<큰어머니> 노래에 등장하는 첩은 처를 극진히 대접한다. 본처가 칼을 품고 새벽바람을 가르며 찾아가지만 첩은 처를 ‘큰어머니’라며 극진히 환대한다. 심지어 “가지마소 가지마소”, “자고가소 자고가소”라면 처를 붙잡기까지 한다. 노래 속 첩은 본처를 환대하고 처에게 갖은 이양을 부린다. 다른 장르에서 등장하는 첩이 남편의 사랑과 그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처와 치열한 경쟁관계를 벌이고 처에게 위협을 끼치는 것과는 달리 노래 속 첩은 대부분 처를 적극 환대하는 모습으로 등장한다. 자신이 첩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다.

님은 낮으로는/ 등너매 첩을두고
 밤으로는 자로가고/ 낮으로는 놀리가고
 행주치매 들치입고/ 더벅머리 걸어치고
 큰칼라아서 손에들고/ 작은칼은 품에품고
 휘틀휘틀 첩의 집에 찾아가서/ 대문열고 들어서니
지비겔은 지집년이/ 방석방석 꽃방석을 비티리고(꺀아놓고)
크다크다 큰어머니/여얏으소 저얏으소
 지비겔은 지집년이 /나비같이 절을 하니
 요내눈에 이리한데/ 님의눈에 어찌할까
 어찌녁에(어제저녁에) 했는 술을/ 얼시구나 다하나 걸러서
잡으시오 잡으시오/ 이 술한잔을 잡으시마
주먹같이 맏힌마음/ 맹세같이도 풀립니다 .. 이하 생략³⁹⁾

제비같은 모습으로 처의 앞에 서서 나비처럼 절을 하고 있는 첩은 처에게 술을 권한다. 이 술 한 잔 잡으시면 주먹같이 맏힌 마음이 한순간 풀린다는 것이다. 처의 시각에서 첩을 말하고 있던 서술자의 시점은 다시 “잡으시오 잡으시오”라는 첩의 말을 통해 처에게 다가간다. 첩은 처에게 술로 모든 마음을 풀고 가라고 권하고 있다. 이처럼 <큰어머니> 노래 속에 등장하는 첩은 언제나 아름답고 사랑스러우며 친절하고 애교 넘치는 대상으로 등장한다.

첩으집에 놀러가니/ 제비겔은 날싼년이
 나부납작 절을하네/ 크다크다 큰어마시/
 꽃방석을 퍼뜨리면/ 사방석을 퍼뜨리면/
 크다크다 큰어마시/ 여얏으소 저얏으소

39)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요대관』, 691-692면, <첩타령> 경상북도 김천시 농소면 봉곡리.

꽃방석도 나아싫다/ 사방석도 나아싫다
 씩은제비가 지책이다/ 은다리비 불피우고
 허나재기 담배담고/ 진땀뱃대나 잡으시소
 진땀뱃대 어라싫다/ 곰방대가 지적이다
 덜다보세 덜다보세/ 첩으정지 덜다보세
 첩으정지 덜다보니/ 은술이야 낫술이야/ 줄줄이도 걸렸구나
은그릇 녹그릇/ 불불이도 없었구나
은순가락 낫순가락/ 단다에도 없었구나
 덜다보세 덜다보세/ 첩으방에 덜다보세
 첩으방에 덜다보니/ 여얼두폭 깨민 이불
니목반자 은자놓고/ 원양침 잡비게를/ 비는 듯이 널치놓고
새별같은 꽃요강을/ 팔치만창 미리놓고
 크드크드 큰어마시/ 가실라이면 아롱다롱
 걸궁말끔 타고가소/ 담요를 깔고가소.. 이하생략 40)

한편 노래를 통해 등장하는 호사스런 첩의 세간은 참으로 인상적이다. ‘은술이야 낫술이야, 은그릇 낫그릇, 은순가락 낫순가락, 열두폭 이불, 원양침’ 등 첩이 누리고 있는 호사스런 세간에 대한 묘사가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 현실의 눈으로 노래를 읽어나가게 되면 노래 속 첩의 정체는 참으로 현실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선 후기 평민의 삶이 어떤 것이라는 것은 염두에 둔다면 더욱 그러하다. 노래 속 등장하는 첩의 행색이나 세간의 모습은 지배층이라야 가능할 것이라 보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조강지처인 처와 대비되는 첩의 살림이 이러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다. 과연 이것들이 실제 첩들이 누렸던 것들일까? 부를 축적한 평민 남성들이 조강지처가 아닌 첩에게 이 모든 것을 허락하는 것이

40) 『한국구비문학대계』 7-16, 245-248면.

가능하거나 한 일이었을까? 물론 극소수 일부에서 그런 일이 있었을 수 있고 아주 드물게 그런 경우가 있었을지 모르지만 분명 보편적인 일은 아니었을 것이다.

따라서 노래 속에 등장하는 첩은 현실의 모습이 아닐 수 있다. 이는 오히려 첩에 대한 처의 강박관념이 만들어낸 과장된 모습일 수 있다. 평민 남성이 부를 축적하며 살았다고 할지라도 노래에서 보이는 첩에게 일방적으로 쏟린 호사는 사실이라기보다는 처의 감정적 억울함을 대변하기 위한 수사적 장치라고 보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럽다.

노래 속 첩은 처의 시각에서 형상화된 전형화 된 모습으로 나타난다. 지배층의 유산이자 남성 욕망의 산물인 첩은 평민 여성 시각에서 노래에서와 같은 형상으로 전형화 시킬 수밖에 없는 대상이고 이러한 전형화를 통해 지금 여기에 살고 있는 나의 억울함, 분함, 절박함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는 것이다.

동시에 노래를 통해 보이는 첩의 극진한 대접은 큰어머니 조강지처로서의 위상에 대한 확고부동한 의식에 근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가족 내에서 큰어머니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고자 했던 향유층 의식을 강력하게 드러낸 것이다. 이러한 처의 자존의식은 노래를 통해 언제나 명확하게 나타난다.

큰어머니 큰어머니/ 이술한잔만 받으시오
 이술한잔받으시고/ 시간전답을 반분함시다
 에라 요년 요망하다/ 가래나 잡어서 찢을년아
 하늘같은 가장을 준께/ 시간전답도 너를 쥐야⁴¹⁾

41) 『한국민요대전 전라남도민요해설집』 위의 자료.

술을 권하며 세간 전답을 반분하지는 첩에게 “가래나 잡어서 찢을 년아” 욕설을 해가면서 “하늘같은 가장을 준께/ 시간전답도 너를줘야”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 노래 속 처와 첩의 대화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공존할 수 없지만 공존해야 만하는 그들의 운명이다. 하늘같은 남편을 가져갔으면서 세간전답까지 반문하자니 처는 기가 막힐 노릇이다. 그러나 첩 입장에서 보면 이는 자연스러운 요구이기도 하다. 남편을 공유한 여성으로서 가족의 일원으로서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요구이기도 하다. 그러나 처는 직설적으로 첩의 제안을 일축해버린다.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첩(대상)에 대한 처의 고민은 <큰어머니> 노래 전편을 통해 그대로 나타난다. 노래의 시작은 상실감과 분노로 출발한다. 그 분노는 남편을 앓아간 첩에게로 향한다. 그러나 첩을 대면한 처는 극진한 첩의 응대와 아름다운 모습에 멍청하게 된다. 분노의 대상이 아니라 그럴만한 대상으로 선회하는 순간이다. 첩의 권유와 처의 물리침이 반복되는 장면은 처와 첩이 연대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엿보게도 한다. 그 과정에서 첩에 대한 분노는 다른 감정으로 희석된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온 처는 죽거나 탄식하거나 첩의 죽음을 기뻐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여전히 유보적인 심적 상태를 드러낸다. 노래하는 창자가 선택하는 마음의 향방대로 노래 속 처는 죽기도 하고 탄식하기도 하고 보상받기도 한다. 이러한 각기 다른 결말의 양상은 갈등과 타협의 경계에서 서성이는 향유층 의식을 반증하고 있다.

4. 갈등과 타협, 그 경계를 서성이며 말하다

첩에 대한 수용은 처가 꿈꾸어왔던 남편과의 낭만적 사랑에 대한 포기

이며 축첩제도가 용인되는 사회의 질서를 수용하겠다는 사회적 자아의 순응을 함의한다. 그 순응의 현실에 대해 처는 분노한다. 그 분노는 강력한 자의식으로부터 출발한다. 온전한 내 것이어야 하는 그를 공유해야 한다는 원초적이고 본능적인 거부감이기도 하다. 그러나 처는 내 눈에도 저러한데 하는 또 다른 시선으로 첩을 바라보게 된다. 원초적이고 정서적 자아로서는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그 대상에 대해 스스로 내면화해 온 감염된 욕망의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한다. 그러면서 정서적 자아가 수용할 수 없는 현실을 다시 끌어 앉아야 할 현실로 인식하기 시작한다. 타협 불가능한 상황에서 생존해야 한다는 인식에 도달하면서 자신의 사회적 위상과 그의 위상에 대해 고민하며 사회적 자아의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게 된다. 노래를 통해 나타나는 처의 변화의 모습은 바로 이러한 점들을 말해주고 있다.

노래 초반에서 여성 화자는 처와 첩이라는 위계적 위상보다는 남편을 독점하는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인다. 그러나 노래를 불러 나가는 과정을 통해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과 그 현실에서 첩을 어떻게 수용해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이러한 고민은 남편의 이기적 욕망을 긍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는 않는다. 처는 끝까지 유보적인 태도를 견지한다. 첩의 적극적인 타협의 요청이나 가족으로서 인정해달라는 요청에도 처는 끝까지 유보적 태도를 버리지 않는다. 첩의 적극적인 소통을 위한 몸짓, 변화하여 흔들리고 있는 내적 동요, 그러한 동요와는 상관없이 여전히 타협을 유보하고 있는 처 이러한 심리적 대립구도와 극적인 긴장감이 <큰어머니> 노래를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해석의 지점이다.

노래의 현장에서는 그 어떤 누구도 첩의 입장에서 노래하지 않는다. 처의 입장에서 노래한다. 처의 입장만을 대변하며 부르는 노래를 통해서 노정되는 변화의 양상과 머뭇거림을 통해 비로소 <큰어머니>노래에 담겨

있는 살아있는 목소리와 만나게 된다.

앞서 언급했듯이 <큰어머니> 노래에 나타나는 처의 행동은 감정적인 반응으로부터 출발한다. 그러다 이러한 감정적인 반응은 첩을 대면하면서 변화하게 된다. 그 변화의 지점에는 원초적이고 본능적인 욕망과 남성적 욕망을 내면화해온 사회적 욕망간의 충돌이 벌어진다. 그러면서 여성 화자는 현재의 내 사회적 위상을 기저로 하면서 나오는 다른 입장의 타자를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된다. 이 지점에서 공존과 연대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살아나기 시작한다. 이 고민은 처의 말을 통해 직접적으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처의 행동과 심적 변화, 첩의 행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노정되는 과정을 통해 읽혀지고 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큰어머니> 노래에 나타나고 있는 처의 심리적 변화의 과정을 추적하는 작업은 매우 중요하다. 이 변화의 과정을 통해 남성 욕망이 만들어낸 여성적 삶의 한계를 자각하고 이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에 대한 주체적 고민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⁴²⁾

주체적 고민 이후 처는 첩을 경쟁자라고 인식하지만 갈등의 근원적 원인 제공자라고 여기지 않게 되었다. 대신 그 경쟁적 갈등관계를 근원적으로 누가 만들고 있는가에 대한 명확한 인식에 도달한다. 이러한 인식은 <후실장가>에 등장하는 본처의 목소리를 통해 가장 잘 나타나고 있다. 남편에게 죽음을 저주하는 본처의 목소리에서 남성 중심 사회가 욕망하는 낭만적 사랑에 분노한다. 무엇이 부족해서 후실장가를 가냐는 본처의 목소리에서 또 다른 사랑을 찾아나서는 남성의 자기중심적 이기심을 질타한다.

42) 많은 자료가 집으로 돌아가는 처의 모습을 담고 있다. 그러나 각편에 따라서는 자발적 죽음의 선택을 통해 남성 욕망에 저항하는 결연한 의지를 내보이기도 하며 첩의 부고를 듣고 통쾌해지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러한 양상은 노래를 부르는 창자들의 개별적 의식을 반영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철저하게 본체를 대접하고 환대하는 첩의 모습은 첩을 바라보는 처의 시각을 잘 반영한다. 처를 환대하는 노래 속 첩의 모습은 이미 타협과 연대의 자리에서 그들의 입지를 고려한 처의 시각을 보여준다. 그래서 본체들이 주로 부르는 노래 속 첩은 갖은 아양을 부리면서 처를 환대하고 그들을 위로하려고 한다. 처가 불렀던 노래 속 첩들은 대부분 목소리가 거세된 존재로 그저 남편의 소모품처럼 등장한다.⁴³⁾ 처의 시각에서 본 첩은 남성의 소모품으로서 소진될 수밖에 없는 운명적 존재이다.

노래 속 처의 태도와 행동, 첩의 형상과 행동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남성 중심 사회 속에서 자각하고 있던 평민 여성의 자기 존재감이다. 첩 소재의 노래를 불렀던 평민 여성들은 노래 초반에는 처와 첩이라는 위계적 위상보다는 남편을 독점하는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지만 노래를 진행하면서 첩과 구별되는 자기 사회적 존재의 의미와 위상을 말하고 있다.

첩을 소재로 한 여성 노래에 나타나는 이 간단하지 않은 처의 변화 양상은 타자로서 살아야 했던 조선 후기 여성들의 포기하고 싶지 않았던 자존의식을 반영한다. 이 자존의식은 여전히 첩과의 완전한 소통을 거부하는 유보적 태도를 견지하게 만들고 있다. 어떤 권유도 응하지 않고 ‘물리쳐라’를 일방적으로 쏟아내는 처의 모습은 여전히 머뭇거리는 여성의식의 일면을 보이고 있다.

<큰어머니>노래를 통해 진행되는 서사적 전개를 통해 조선 후기 여성이 직면했던 가장 어렵고 힘든 상황이 무엇이었으며 그 상황에서 여성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알 수 있었다. 극도의 긴장감으로 갈등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타협하고 연대해야 했던 그 문제적 상황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노래는 그래서 가치롭다. <큰어머니> 노래에는 순응과 저항의 경계에서 그 문제를 끝까지 놓지 않고자 했던 여성의 강력한 주체적 의지

43) <진주낭군>에 등장하는 기생첩이 대표적인 예이다.

와 문제제기가 그대로 전달되고 있다. 균열과 충돌의 흔적을 그대로 노정함으로써 가장 효과적으로 자신이 처한 상황을 말하고 있는 셈이다. 이것이 <큰어머니> 노래를 통해 전하고자 했던 말로 다할 수 없는 말들이었고 이러한 말을 통해 강력한 여성의 자존의식을 보여주고 있다. 경계를 서성이는 여성의식, 그것이이야말로 조선 후기를 살았던 여성들의 가장 강력한 주체적 자의식을 반증하는 것은 아닐까?

참고문헌

- 강진옥, 「서사민요에 나타나는 여성인물의 현실대응양상과 그 의미」, 『구비문학과 여성』, 한국구비문학학회, 박이정, 91-122면.
- 길태숙, 「민요에 나타난 여성적 말하기로써의 죽음」, 『여성문학연구』 9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03, 188-210면.
- 길태숙, 「민요에 나타난 첩의 위상」, 『여성문학연구』 13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05, 7-29면.
- 박무영, 「남편의 잉침과 아내의 적국-『한씨규훈』과 『자경』편의 첩 다루기가 의미하는 것」, 문헌과 해석 18호, 태학사, 2002.
- 서영숙, 『시집살이노래 연구』, 박이정, 1996, 1-290면.
- 서영숙, 『한국 서사민요의 씨실과 날실』, 역락, 2009, 1-685면.
- 이이호재, 『조선조 사회와 가족』, 한울아카데미, 2003, 106-109면.
- 이정아, 「서사민요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3, 1- 93면.
- 이정아, 『시집살이 노래와 말하기의 욕망』, 혜안, 2010, 1- 352면.
- 임동권, 『한국민요집1』, 집문당, 1980, 9-661면.
- 임동권, 『한국부요연구』, 집문당, 1982, 5-233면.
- 임철호, 「민요에 설정된 처첩간의 갈등과 반응」, 국어문학39집, 국어문화회, 2004, 293-325면.
- 정지영, 「조선후기 첩과 가족 질서- 가부장제와 여성의 위계」, 『사회와 역사』 65호, 한국사회사학회, 2004, 6-37면.
- 조은 조성윤, 「한말 서울지역 첩의 존재양식- 한성부 호적을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 65호, 한국사회사학회, 2004, 74-100면.
- 황수연, 「조선후기 첩과 아내: 은폐와 갈등과 전략적 화해」,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12집,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6, 349-380면.
- 한국문화방송, 『한국민요대전 전라남도민요해설집』, 1993, 1-731면.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구비문학대계』 전권, 1980-1988.

ABSTRACT

Feminine Consciousness Shown in a Song with Material of Concubine

—Centering on a Song Titled <Keuneomeoni>*

Lee, Jung-Ah

This study was prepared in order to explain feminine consciousness, which is being delivered through wife's change and concubine's shape, which are shown in a song titled <Keuneomeoni(the wife of the elder brother of one's father)>, which is a typical song with material of concubine sung by common women. The song <Keuneomeoni> has ever been known already as a song that reveals feminine subjective consciousness through diverse and delicate discussions of scholars in the past. What this study notes includes a wife's change, which is indicated in a song, the characteristic of feminine consciousness, which is exposed this changing process, and the significance of raising its problem.

In a song <Keuneomeoni>, a wife's behavior and mental change are progressed as follows. Waiting for a husband → getting angry after waiting, visiting a concubine → changing mind after seeing concubine, returning home → lamenting, suiciding, being glad after listening to news on concubine's death. Through these three kinds of narrative progression, a wife's change can be known. First of all, anger, which was stirred by a sense of loss that long waiting brought, leads to behavior of visiting concubine's house. The wife's behavior of visiting concubine's house leads to a mental change as saying of being enough to do so with facing concubine again. After then, the wife is still revealing the

* The name called <Keuneomeoni> designates a type of <Cheopjibangmun(a visit to concubine's house)>. A reason that this type was called as <Keuneomeoni> is not only because informants at that time of recording named it as a song titled <Keuneomeoni>, but also because the point is effectively delivered as saying of being a song by Keuneomeoni(the wife of the elder brother of one's father).

reservations and feelings with showing diverse conclusions such as lamenting, missing, suiciding, or imagining concubine's death after returning home again.

Even the concubine, who appears in a song, appears with leisurely and bountiful image unlike the social stature of being possessed in reality, and treats and entertains Keuneomeoni(the wife of the elder brother of one's father) very kindly, who visited with extreme sense of anger. The concubine's this shape reflects double sight of wife, who looks at the concubine. It is captured self-consciousness, which was adapted to masculine desire, in comparison with her miserable appearance, along with recognition that the concubine is existence who needs to treat her very kindly. Also, the concubine's colorful household furniture, which is indicated in a song, can be seen as literary rhetorical device, which speaks for the wife's falsely mind.

In a song titled <Keuneomeoni>, the specific worry and conflict are being indicated on how a woman needs to proceed with living by being adjusted to the reality that masculine oppression is justified. The aspect of this conflict makes diverse conclusions mentioned with sticking to the reservations in its boundary to the end. The presentation of a problem, which is being delivered through feminine consciousness of hanging around the boundary of conflict and compromise, was just the expression of subjective self-consciousness in powerful woman.

Key Words Wife, Concubine, Conflict, Compromise, Death, Lamentation, Anger, Feminine reality, Subjective self-consciousness, Feminine speaking, Husband, <Keuneomeoni(the wife of the elder brother of one's father)>, <Jinjanggun>, <Husijangga>, The other desire, Feminine Consciousness, Boundary, Reservations

논문투고일	: 2011. 3. 31
심사완료일	: 2011. 5. 20
게재확정일	: 2011. 5. 31